

찬송가 405장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 갈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384장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2024년

설 가정 예배



설 가정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인도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405장 **다같이**

기 도 **가족 중 한 사람**

성경말씀 **신명기 33장 26-29절 (구약 318쪽)** **말은이**

- 26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 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 28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다
- 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나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은이**

찬 송 384장 **다같이**

주기도 **다같이**

말씀나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며 서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보다 더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남긴 모세의 축복입니다.
출애굽 이후로부터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앞날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함께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함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새 땅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올해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험한
세파 속에 살아내야 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땅의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터를 삼고 살아가는 곳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챙기시며, 머무는 곳마다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시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인생, 주위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